



‘검투사’ 김상현

특수 헬멧 쓰고 2군 경기... 주중 롯데전 1군 복귀할 듯

김주형 인대파열·뺨조각

KIA 거포 김상현이 ‘검투사’로 변신했다. 광대뼈 함몰로 재활을 해왔던 KIA 김상현이 2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퓨처스리그를 통해 25일만에 타석에 복귀했다. 3번 지명타자로 방망이를 잡은 김상현은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부상 이후 첫 실전 경기를 소화했다. 8월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빠른 복귀 움직임이다. 김상현은 지난 7월29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김상수의 공에 얼굴을 맞으면서 광대뼈 함몰이라는 부상을 당했다. 김상현은 이날 ‘검투사 헬멧’을 쓰고 타석에 섰다. 부상 부위에 대

한 부담감과 공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한 특별 무기다. 팀의 최고참 이종범도 광대뼈 함몰 부상 이후 검투사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선 경력이 있다. 김상현은 “특수 헬멧을 쓰니 답답하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집중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검투사 헬멧을 착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상현은 “그나마 덜 위험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골절된 세 곳 중 마지막 부위가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주형이까지 부상을 당한 만큼 팀 상황이 좋지 않다”며 “또 통증도 없는 만큼 바로 팀에 합류해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첫 실전 경기에 나선 김상현은 내

야수 거포 김주형까지 22일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주중 롯데와의 경기를 통해 1군에 복귀할 전망이다. 한편 21일 넥센과의 원정경기에서 생애 첫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팀 연패탈출의 주역이 됐던 김주형은 팔꿈치 인대 부분 파열로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김주형은 23일 정밀 검진 결과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과 꺾조각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2~3주 재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희섭의 부상 공백에서 1루 자리를 수성하며 우타 거포로 기대를 모았던 김주형의 부상으로 ‘부상병동’ KIA는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검투사 헬멧’을 쓰고 타격하는 김상현

“男 100m 파월이 볼트 이긴다”



(세계육상 D-3)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남자 100m에서 ‘번개’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를 3위로 밀어내고 ‘2인자’ 아사파 파월(29·자메이카)이 우승할 것이라는

‘육상 전설’ 아토 볼든 예측

볼트 올시즌 힘겨운 레이스

분석이 나왔다. 1997년 아테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금메달리스트인 아토 볼든(38·트리니다드토바고)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 TV네트

워크인 ‘유니버설 스포츠’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회 단거리 종목의 1~3위 선수를 예상했다. 올림픽에서만 4개의 메달을 따내며 1990년대를 주름잡은 전설의 스프린터인 볼든은 은퇴 이후 육상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볼든은 남자 100m 우승자로 아사파 파월을 지목했다. 볼든은 볼트의 100m 정상 수성 실

패를 예상하는 요인으로 200m 성적 들었다. 볼트는 “볼트는 올 시즌 너무 힘겨운 레이스를 했다”면서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볼트는 200m에서 19초50대의 기록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볼든은 “볼트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스타트를 끊은 것은 2009년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월과 블레

이크는 한층 나은 스타트와 가속을 거쳐 50m까지 결합할 것”이라면서 파월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영국의 배영 업체인 윌리엄 힐은 파월이 아닌 볼트의 우승 가능성을 크게 봤다. 윌리엄 힐은 남자 100m에서 볼트의 우승에 거는 배당금을 가장 낮게 책정했고, 그다음으로 파월과 요한 블레이크 순으로 낮게 매겼다. 한편 볼든이 남자 100m 우승후보로 꼽은 파월은 22일 오후 대구에 도착한 지 만 하루도 안돼 곧장 트랙에 섰다. 파월은 23일 오전 7시40분부터 2시간20분가량 경산 종합운동장에서 자메이카 동료와 트랙을 질주하며 땀을 흘렸다. /연합뉴스

선수단 입국 러시 조직위 비상 체제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나흘 앞둔 23일부터 선수들의 본격적인 입국행렬이 이어지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이날부터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4일간 선수만 1000여 명, 임원을 합치면 2000여 명이 대구에 입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자 800m 세계기록(1분41초01) 보유자인 레쿠타 루디샤(23)를 비롯한 케냐 선수 46명이 23일 입국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에만 선수와 임원을 합쳐 753명이 선수촌에 여장을 꾸민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9·러시아)도 곧 대구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3일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판데르 파르트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10분 뻘 박지성 “몸 만 풀었어”

맨유, 토트넘에 3-0 완승

박지성(30)이 교체출전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홋스퍼를 제압하고 올 시즌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박지성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1-201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36분 애슐리 영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와 1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벤치를 지켰던 박지성은 주

포지션인 왼쪽 날개로 투입돼 10여 분간 활약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후반 44분에는 중앙으로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며 한차례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추가시간에는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에게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맨유는 후반 16분 대니 웰백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31분 안드레슨, 후반 42분 웨인 루니의 헤딩 추가골에 힘입어 토트넘을 3-0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